

손흥민 1골 1도움 활약... 흥명보호, 미국 평가전 2-0 완승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본선을 준비하는 흥명보호 축구 국가대표팀이 '손흥'을 가동해 11년 만의 미국 평가전에서 두 골 차 완승을 거뒀다.

흥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 대표팀은 7일(한국 시간) 미국 뉴저지주 해리스의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과의 친선 경기에서 전반 18분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의 선제골과 전반 43분 이동경(김천)의 추가골로 2-0 승리했다.

지난달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를 떠나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무대에 진출한 손흥민은 후반 18분까지 뛰며 1골 1도움으로 맹활약했다.

또 해외 태생 혼혈 선수로는 처음 남자 축구대표팀에 발탁된 엔스 카스트로프(민헨글라트바흐) 이날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해 후반 19분 그라운드를 밟아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한국(FIFA 랭킹 23위)은 유럽파를 포함한 최정예 멤버로 9월 A매치 기간 내내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미국(15위), 멕시코(13위)와 원정 평가전 2연전에 나섰다.

오는 10일 오전 10시 테네시주 내슈빌 지오디스파크에선 멕시코와 대결을 이어간다.

2014년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치른 평가전(0-2 한국 패) 이후 11년 7개월 만에 미국과 다시 만난 한국은 실욕에 성공했다.

또 미국과 역대 전적에서 6승 3무 3패로 우위를 이어갔다.

월드컵 본선을 대비해 스리백 전술을 실험 중인 흥명보호는 이날 미국을 상대로 3-4-3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흥 감독은 '캡틴' 손흥민을 최전방 스트



한국 축구 대표팀의 손흥민

사진-대한축구협회제공

손흥민 135번째 A매치서 52호골... 이동경 추가골

'혼혈 태극전사' 카스트로프, 교체로 A매치 데뷔

정상빈 뺀 백으로 4년 만에 A매치 복귀... 조현우 선방쇼

라이커로 세운 '손흥' 전술을 택했다.

이동경(김천), 이재성(마인츠)이 공격 2선에 포진해 손흥민을 지원했고, '중원 사령관' 황인범(페예노르트)이 부상으로부터 소집에서 제외된 중원은 백승호(버밍엄 시티), 김진규(전북)가 호흡을 맞췄다.

수비진에선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김주성(산프레체 히로시마), 이한범(미트웰란)이 스리백을 구축했고, 좌우 윙백으로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 설영우(츠르페나 즈베즈다)가 배치됐다.

골키퍼 장갑은 조현우(울산)가 썼다.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사상 첫 해외 태생 '혼혈 태극전사'인 미드필더 엔스 카스트로프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손흥민의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 시절 은사인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이끄는 미국 대표팀은 크리스천 폴리시(AC밀란), 티모시 웨어(마르세유) 등으로

공격진을 꾸렸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한국 대표팀 감독의 아들인 골키퍼 조너선 클린스만(체코 나)은 벤치에 머물렀다.

2021년 6월 이후 약 4년 만에 A매치 복귀전을 치른 정상빈은 원어가 아닌 윙백으로 나섰다.

후반 45분에는 오현규가 날카로운 헤더를 시도했지만, 상대 골키퍼에 가로 막히며 아쉬움을 삼켰다.

경기 막판엔 조현우가 잇따른 선방쇼로 한국을 위기에서 구했다. 문전에서 미국 공격수 발로건의 슈팅을 연속해서 쳐냈다.

결국 경기는 전반 두 골 차 리드를 잘 지켜낸 한국의 2-0 승리로 마무리됐다.

뉴스

KIA, NC 꺾고 4연패 탈출... 가을야구 희망 이어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NC 다이노스를 꺾고 4연패에서 탈출하며 포스트시즌 진출 희망을 이어갔다.

KIA는 6일 창원 NC파크에서 벌어진 2025 신한 솔뱅크 KBO리그 NC와의 경기에서 8-4로 이겼다.

4연패의 시슬을 끊은 KIA는 58승(4무 63패)을 수확, NC(57승 6무 62패)를 8위로 끌어내리고 7위로 올라섰다. 5위 KT 위즈(63승 4무 62패)와는 3경기 차다.

NC는 4연패에 빠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NC가 앞서면 KIA가 따라가는 흐름이 이어졌다.

NC가 1회말 2사 1, 2루에서 타진 박건우의 중전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자 KIA는 2회초 타진 최형우의 우월 솔로포(시즌 21호)로 동점 점수를 냈다.

2회말 다시 NC가 리드를 가져갔다. 김휘집의 몸에 맞는 공과 박세혁의 우전 안타로 만든 1사 1, 2루에서 김주원이 우전 적시타를 뽑아냈고, 이때 나온 좌익수 실책으로 3루까지 나아간 박세혁이 최원준의 희생플라이로 득점했다.

KIA는 4회 다시 추격했다.

4회초 최형우의 안타와 나성범의 볼넷으로 일군 2사 1, 2루에서 김석환과 김태군이 연달아 적시타를 때려내 3-3으로 균형을 맞췄다.

KIA는 5회 역전까지 일궜다. 5회초 윤도현의 내야안타와 박찬호의 볼넷으로 무사 1, 2루가 됐고, 김선빈이 우중간 적시타를 뽑아냈다.

6회 승부의 추가 KIA 쪽으로 기울었다.

6회초 1사 후 김호영이 내야안타와 상대 실책, 도루로 3루까지 간 뒤 윤도현의 좌전 적시타로 홈을 밟았다.

박찬호, 김선빈의 연속 안타로 1사 만루 찬스를 이은 KIA는 최형우의 2루수 땅볼로 3루 주자 윤도현이 득점해 1점을 추가했다.

이어진 나성범 타석 때 3루 주자 박찬호가 홈스틸에 성공하면서 7-3으로 점수차를 벌였다.

KIA는 7회초 오선우의 2루타와 김석환의 볼넷, 김호영의 몸에 맞는 공 등으로 일군 2사 만루에서 박찬호가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 1점을 추가, 승기를 굳혔다.

NC는 8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맷 데이비슨이 우월 솔로 홈런(시즌 29호)을 터뜨려 1점을 만회했으나 더 이상 추격하지 못했다.

9회말 등판한 KIA 마무리 투수 정해영은 세 타자를 모두 내야 땅볼로 처리하고 팀 승리를 지켰다.

KIA 선발로 나선 외국인 투수 아담 울리는 70닝 4피안타 8탈삼진 3사자구 3실점(2자책점)으로 제 몫을 다해 팀 승리에 발판을 냈다.

울리는 이날 호투로 시즌 10승(6패) 고지를 밟았다.

KIA 타선에서는 리드오프 윤도현이 5타수 2안타 1타점 2득점으로, 최형우가 5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으로 활약했다.

박찬호는 생애 첫 단독 홈스틸을 기록하는 등 팀 승리에 기여했다.

NC 외국인 에이스 라일리 톰슨은 4이닝 7피안타(1홈런) 6탈삼진 3사자구 4실점으로 흔들려 시즌 6패(14승)째를 떠안았다. /뉴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윌스톰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카페스테이션 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종의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텐~텐~ 짹짹” 양궁 컴파운드 응원 나선 광주시민들

광주국제양궁장서 남녀 예선전 열면 경쟁 국가대표 부모도 한자리에... “아들 화이팅”

“텐~텐~ 짹짹” 광주2025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남녀 컴파운드 예선전이 치러지는 6일 오전 광주 남구 광주국제양궁장.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이날부터 관중석에는 국가와 개인의 명예를 걸고 활과 화살에 승부수를 띄운 궁수들을 응원하러 온 광주시민 200여 명이 모여 들었다.

빨강과 파란 형색색의 손부채를 든 시민들은 비교적 정숙한 스포츠인 양궁의 수칙 ‘톤 앤 매너’를 유지하고자 절제된 환호를 보였다.

선수단 입장과 표적지 점수 확인 차 선수들이 이동할 때는 “텐~텐~ 짹짹”하며 우레와 같은 함성을 보내는가 하면, 그 외 사적 시간에는 쥐 죽은 듯 고요함을 지키며 마음 깊이 저마다 지지하는 선수들을 응원했다.

응원단은 컴파운드 남녀 예선전 출전 선수 200여명의 명단이 표출되는 전 광관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름을 찾기도 했다.

컴파운드 여자 국가대표 소채원, 심수인, 한승연 등의 이름이 전광판에 나타나자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사진을 찍어 남기는가 하면 ‘생애 첫 양궁장 방문’이라며 서로 기념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다.

국가대표 자녀들을 응원하러 온 부모들도 객석 한 칸에서 망원경을 통해 경기를 집중하며 바라봤다.

이날 경기장을 찾은 컴파운드 남자 국가대표 최은규의 부모 최종호(62)·엄정미(61)씨 부부는 개인전에 출전한 최은규의 선전에 흡족한 듯 연신 입가에 미소를 띠었다.

최은규의 화살이 2회차 시기까지 10점 과녁보다 더 안쪽에 있는 ‘X’에 많이 꽂혀있는 것을 본 최씨 부부는 “장하다 아들”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광주2025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컴파운드 남녀 개인 예선전이 치러지는 6일 오전 광주 남구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응원단인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 /뉴스

아버지 종호씨는 “아들은 최근 국내 대회 월드컵 출전 당시 해설진으로부터 ‘엑스-텐 장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성적이 좋았다. 언제나 당부하는 자신감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시길 바란다”며 “기세를 몰아 이번 광주세계양궁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길 기도하겠다”고 응원했다.

시민들도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김미정(55·여)씨는 “텔레비전에서는 보던 양궁을 실제로 볼 수 있어 신기한 경험이기도 하다. 리커브 대비 약세를 보인 컴파운드 종목에 실제 응원할 수 있어 뜻깊기도 하다”며 “성적도 좋지만 무리 다치지 않고 경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건의사항도 이어졌다. 오모(70·여)씨는 “개최국이지만 경기 중계가 현장에서 모두 영어로 진행되고 있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예선이지만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며 “개선해 더 나은 경기 운영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제양궁장에서 예선을 마친 광주세계양궁대회 컴파운드는 오는 7일 오전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특설 경기장에서 혼성 단체 동·금메달 결정전, 남녀 단체 동·금메달 결정전이 펼쳐진다.

남녀 개인전 메달 색깔을 가르는 경기는 8일 16강전부터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김명수 기자